

광주 휴가철 애완동물 마구 버려진다

7월 한달 개·고양이 무려 200마리

각종 질병 노출 상당수 폐사·안락사

본격 여름 휴가철로 접어들면서 광주지역 곳곳에서 버려지는 개와 고양이 등 애완동물이 급증하고 있다.

휴가철 관리상의 어려움 때문에 주인들에게 버림받은 애완동물들 일부 질병으로 폐사하거나 안락사 하는 등 비참한 최후를 맞고 있다. 행정당국은 여름철 유기동물 관리로 행·재정력을 낭비하는 악순환을 되풀이 하고 있다.

3일 광주동물보호소에 따르면 휴가철이 시작된 지난 7월 한 달 동안

유기동물로 신고돼 보호소에 입소한 애완동물은 개 99마리, 고양이 107마리 등 모두 206마리다. 같은 달 40마리가 병으로 폐사하고 38마리가 안락사 처리됐다.

7월 유기동물 수치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한 달 평균 130마리 애완동물이 들어온 것에 비하면 무려 58% 가량 늘어난 수치다.

유기동물이 크게 늘어난 것은 휴가로 인해 오랫동안 집을 비우는 시민들이 애완동물을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 버리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휴가철에도 사료와 관리도구 등을 지참해야 하는 등 애완동물을 동반하는 게 귀찮아 버리는 경우가 많다”며 “질병에 감염된 동물들은 치료비 부담 때문에 대부분 주인에게 버림받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말했다.

또 여름철 대문을 열어두고 생활하는 집들이 늘면서 주인의 눈길이 닿지 않는 틈을 타 혼자 집을 나섰다가 길을 잃은 애완동물도 속하다.

이들 중 상당수는 동물보호소에 맡겨지지만, 정작 찾아 나서는 주인은 없는 실정이다.

동물보호소에 있는 유기동물 가운데는 털에 염색이 돼 있는 등 비교적 관리가 잘 된 개나 고양이가 많으나 이들을 찾는 주인은 드물다고 한다.

실제로 지난 2일 광주시 남구 봉선

동 한 골목길을 배회하다가 시민에게 발견돼 보호소로 온 암컷 푸들은 양귀의 털이 분홍색으로 염색돼 있는 등 깔끔한 모습이었다.

버려지는 애완동물 중 일부는 오랫동안 악취와 소음 등 부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하면서 각종 질병에 노출된 탓에 보호소에 들어오더라도 적응하지 못하고 최후를 맞는다.

광주동물보호소에 따르면 올 1월부터 7월까지 병으로 폐사하거나 안락사된 유기동물은 월 평균 36마리에 달한다.

광주동물보호소 관계자는 “매년 휴가철이면 연례 행사처럼 버려지는 애완동물이 크게 늘고 늘고 있다”며 “애완동물 역시 사람처럼 소중한 가족 구성원이라는 생각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3일 광주시 북구 전남대학교 내 광주동물보호소에서 수의사가 유기견의 건강 상태를 살피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청자축제 최우수상 ‘계영배’

(戒盈杯)

가득 부어도 술 안 빠진다

구매자 “영터리” 강진군 “예술성만 봤다”

‘청자의 고장’ 강진에서 태어난 ‘계영배(戒盈杯)’ 논란이 일고 있다.

청자 구매자가 계영배의 기능이 온전하지 못하다며 새 작품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강진군은 심사위원들로부터 예술성을 평가받은 작품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3일 강진군에 따르면 지난 2008년 8월 강진청자축제기간에 대한민국청정자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청자전사계영배’(사진·靑瓷畵硯砂盈杯·이하 계영배) 1점을 70만

원에 산 김모(50)씨가 최근 자신이 술이나 물을 가득 부어 실험한 결과 절반 이상이 그대로 남아 있다며, 강진군에 진상규명과 함께 환불 또는 리콜을 요청했다.

김씨는 공모전 최우수상을 받은 작품이라는 점을 믿고 산 만큼 심사위원들의 책임도 물었다.

그러나 부랴부랴 확인에 나선 군청은 당시 심사위원들이 기능성이 아닌 작품성을 위주로 평가한데다 개인(구매자와 작가)간 거래가 이뤄진 만큼 김씨의 요구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 계영배=술잔 아래 주전자 모양의 항아리가 놓여있다. ‘사이판(Siphon)’의 원리’를 이용, 술이 일정 높이 이상 차오르면 수압이 대기압보다 커지면서 잔 속에 만들어진 관을 거쳐 아래 항아리로 모든 술이 빠져 나간다.

강진군 관계자는 “당시 심사위원들에게 공문을 발송, 경위를 파악했으나 작품성을 위주로 평가한 공모전 심사에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민원인이 청자를 만든 작가와 논의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가득 차는 것을 경계하는



계영배와 그 단면

잔’이라는 의미의 계영배는 지난 2000년 최인호의 소설 ‘상도’에서 조선시대 거상 임상옥이 실제 자신의 과욕을 자제하기 위해 간직한 사실이 언급된 뒤 화제가 됐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보해저축銀 회계사 불구속 기소

대손 총당금 줄이고 BIS 비율 높여

안진 회계법인도 기소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호경)는 3일 보해저축은행에 대한 회계감사를 부실하게 한 혐의(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로 회계사 양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양씨는 2009년과 지난해 회계감사에서 회수 가능성이 적은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는 대손 총당금을 줄이고 건전한 자산을 부풀려 보해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을 높은 혐의를 받고 있다.

대손총당금 관련 감사 분야 책임자

었던 양씨는 은행 측의 주문을 받고 1%대에 불과한 BIS 비율을 8%대인 것처럼 꾸민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회계감사 결과는 전자공시되는데 BIS 비율이 기준에 못 미치면 감독기관의 감사를 받게 되고 심하면 영업정지되기도 한다.

양씨는 보해저축은행 회계감사를 맡았던 안진 회계법인에서 지난 2월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업무관리 책임을 물어 안진 회계법인도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임건우 영장 기각

광주지법은 3일 불법대출 등을 통해 보해저축은행 부실을 키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법상 배임 등)를 받고 있는 이 은행 대주인 보

해양조 임건우(64) 전 회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는데다, 임전 회장이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피의자 방어권이 보호돼야 한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김장호 금감원 부원장보 한강 투신

저축銀 국조 증인출석 중… 생명 지장 없어

저축은행 배리 혐의로 기소된 김장호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3일 낮 한강에 투신자살을 시도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김 부원장보는 이날 낮 12시30분께 서울 동작대교 남단에서 한강으로 뛰어내렸으나 행인의 신고를 받고 긴급 출동한 한강구조대에 의해 구조됐다.

김 부원장보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날 오전 국회의 저축은행 국정조사에 나갔다가 휴회를 틈타 한

강에 몸을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투신 현장에서 유서 등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영업정지된 삼화저축은행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검찰에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06년 9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신상길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으로부터 금감원 검사 때 편의를 제공해주는 등의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골프 접대 등 향응과 백화점 상품권, 현금 등 2천 2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침구 시술도 평생교육 대상”

대법 “학습 공익 부적합 이유 신고 수리 거부 못해”

민간에서 널리 전수돼온 침구 시술도 평생교육 대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3일 인터넷을 통한 침구법 학습센터의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를 반려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구당 김남수(96)옹이 서울시 동부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학습비를 받는 원격평생교육은 신고를 해야 하지만 기재 사항에 흠이 없고 첨부서류가 구비됐다면 신고서를 수리해야 한다”며 “형식 요건을 모두 갖췄음에도 신고 대상이 된 교육이나 학습 내용이 공익적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

로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의학지식이나 정보의 전파 과정에서 일부 잘못된 지식을 무분별하게 습득하게 할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이유로 특별한 법령상 근거도 없이 의학지식을 전문가들만 독점하고 일반인의 접근을 제한할 수 없다”며 “민간에서 널리 전수돼온 침구의 원리와 시술법이 평생교육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남수 옹은 서울 청량리에 인터넷 침·뜸 학습센터를 개설하고, 2003년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했으나 교육 내용이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교육청에서 반려처분을 받아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나원침 (8372) 김장두



취직 미끼 3천만원 끌leck

조경업자 구속영장 신청

광주지방경찰청은 3일 공무원으로 취직시켜주겠다고 속여 금품을 받은 조경업자 정모(47)씨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1월 친구 동생 최모(39)씨가 특별한 직업 없이 생활하는 것을 알고 “고향 선배가 광주시청 고위 간부와 친분이 있는데, 기능직으로 취직시켜주겠다”며 고교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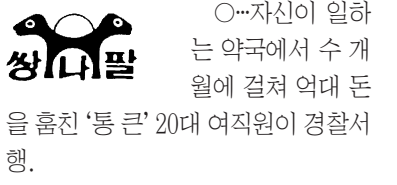
정씨는 지난해 5월부터 1년간 기능직 공무원이 아닌 일용 계약직으로 공원 청소일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경찰에서 공무원에게 채용 청탁을 한 사실이 없고 받은 돈은 사업 자금과 생활비에 사용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씨가 일용직으로 채용된 사실에 주목하고 금품이 실제로 공무원에게 전달됐는지 등 여죄를 캐고 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악곡서 역대 돈 빼돌린 ‘통 큰’ 여직원



○○3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광주시 서구 풍암동 모 악곡 직원 조모(여·27)씨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악곡 금고에서 150여차례에 걸쳐 총 1억원 가량을 빼돌렸다는 것.

○○경찰조사 결과 전산 업무를 담당하는 조씨는 악곡의 하루 매출이 수천만원에 달한다는 점을 노려 상습적으로 절도행각을 벌였는데, 범행장면이 폐쇄회로(CC)-TV에 찍히면서 달미.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 14만 합격자가 말한다 ★★★

2012 학년도

대학편입은 김영과 함께

상위권 대학편입대비, 자타공인 대한민국 No.1

편입영어(이론과정/문제풀이)

자연계열 편입합격의 열쇠, 지방 유일 실강의!

편입수학(미,적분과정/선형대수)

전남대 편입 Hot Point!, 전남대 맞춤형 Teps-

Teps 大 개강 (Teps + 면접대비)

편입합격자 10명중 7명은 김영출신!!

기여피이하의
모인보구권

광주 동부경찰서 뒤 (062) 227-8088

www.kimyoung.co.kr 개강 : 9월 1일